

## 한국형아유르베다 심리유형과 혈액형의 상관관계 연구

곽용기\*

### 초 록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형아유르베다 심리유형 검사로 한국형아유르베다 심리유형을 탐색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형아유르베다 심리유형과 혈액형간의 상관관계가 어느 정도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현대사회가 발달하면서 최근 기업, 군, 교육기관, 관공서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개인 성격과 혈액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또한 조직에서 활용을 많이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관습법 처럼 혈액형별 성격에 대하여 구분하여 적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한국형아유르베다는 휴마인드연구소에서 표준화하여 개발한 한국형아유르베다 심리유형검사(KAPTI)지를 활용하고, 혈액형은 개인별 대한적십자에서 발행한 헌혈증서를 활용하였고, 혈액형 유형은 일생동안 변화가 없는 유전적인 ABO식 혈액형 (A · B · AB · O형) 유형을 사용하여 한국형아유르베다와의 상관관계를 연구하였다.

본 연구결과 한국형아유르베다 심리유형(7유형)과 혈액형간의 유의수준  $**p < 0.01$ 에서 유의미한 결과값이 도출되어 차이분석에서 이론적 배경 연구결과를 기초로 분석한 결과 한국형아유르베다 심리유형과 혈액형에 의한 상관성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기업과 군은 조직 구성원들의 감성관리를 통한 업무능률을 향상시키고, 특히 군 장병의 병영생활에 적용하여 지도 한다면 군의 사고예방과 활기찬 병영생활 지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향후, 한국형아유르베다 심리유형과 혈액형과의 관계 분석시 조사대상자를 300명 이상으로 늘려 유의수준  $**p < 0.01$ 에서도 유의미한지 추가분석이 필요하며, 유의미한 연구결과값 도출시 기업의 이윤창출과 군의 비전투 손실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 적용하여 분석해 볼 가치가 있겠다.

**주제어 :** 아유르베다, 한국형아유르베다 심리유형, 혈액형, 성격, 상관관계

\* 동아대학교 기초교양대학 교수 (E-mail: major0427@hanmail.net)

투고일: 2021년 11월 19일, 수정일: 2021년 11월 26일, 게재확정일: 2021년 12월 2일

## I. 서론

본 연구는 한국형아유르베다 심리유형과 ABO식 혈액형과의 상관관계를 연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1C 현대사회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이 경제·사회 전반에 융합되어 혁신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고 있다. 이러한 급변하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우리나라의 대기업 신입 채용시 필기시험전 인·적성 검사를 선행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조직의 성공·실패 여부는 사람이 우선 중요하다는 인식을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개인이 어떤 성격유형인가에 따라서도 그 조직의 발전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조직의 성패가 좌우 된다고도 할 수 있겠다. 개인은 한국형아유르베다 심리유형을 통하여 나는 누구인가를 정확히 진단하여 내가 가진 장점은 더욱 발전시키고 단점은 보완하는 노력이 있을때 내가 소속된 조직에서 상·하로 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고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사회에서 인성검사는 MBTI, DISC, 에니어그램 등을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군의 인성 검사는 KIDA(한국국방연구원, 2010)에서 연구개발한 신 인성검사(복무적합도, 적응도, 관계유형)도구를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자기이해에 도움이 되고 자아정체감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는 한국형아유르베다 심리유형과 대한적십자사에 헌혈한 개인의 혈액형을 진단한 후 조사대상자의 한국형아유르베다 심리유형과 혈액형을 비교분석하여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단, 연구 목적상 혈액형은 평생동안 변화가 없는 기본 혈액형인 ABO식 체계를 연구에 활용한다.

본 연구는 위에서 기술한 연구배경을 기초로 본 연구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첫째, 한국형아유르베다 심리유형의 개념과 특징을 살펴보고, 한국형아유르베다 심리유형 검사를 통하여 조사대상자의 한국형아유르베다 심리유형을 살펴본다.

둘째, 혈액형에 대한 개념과 특성 살펴보고, 대한적십자사에서 발행한 헌혈증서로 혈액형을 확인한다.

셋째, 교차분석을 통하여 한국형아유르베다 심리유형과 혈액형은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분석한다.

이를 통해 유의미한 값 도출시 조직의 리더가 기업의 직원 및 군 장병들의 조직관리와 리더십 발휘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한국형아유르베다

#### 1) 아유르베다 개념

‘아유르베다 (Ayurveda)’는 인도의 전통의학으로 5천년의 역사를 통해 체계화 되었다. ‘아유르베다 (Ayurveda)’란 ‘생명’을 뜻하는 ‘아유(Ayus)’와 ‘지식’ 또는 ‘지혜’를 뜻하는 ‘베다(Veda)’가 합쳐서 그 어원을 이룬다. ‘아유르베다는 인간의 몸과 마음이 모두 물질적인 것으로 신체(Body), 정신(Mind), 영혼(Soul)의 복합적인 존재로 인식하며,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러한 세 가지의 균형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아유르베다가 추구하는 근본 목적은 자연과 인체의 균형을 통해 자신이 내재한 가능성을 최대한 발휘하며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것이다. ‘아유르베다는 인간을 하나의 작은 우주로 인식하고 있으며, 자연의 기본 원소인 공간, 바람, 불, 물, 땅의 다섯 가지 원소(5원소)를 인간의 신체에 적용하였다. 이러한 5원소의 조합에 따라 공간과 바람의 조합인 바타(Vata), 불과 물의 조합인 피타(Pitta), 물과 땅의 조합인 카파(Kapha)의 세 도샤로 표현한다. 세 도샤 중 바타(Vata)는 미세한 움직임과 변화 등과 관련성이 있으며, 피타(Pitta)는 지각과 역동성 등과 관련성을 지닌다. 카파(Kapha)는 견고함과 안정성과 관련성이 있다. 세 가지 도샤는 모두 개인에게 내재해 있으며 도샤의 비중에 따라 개인의 심리적 특성과 체질 등에 영향을 미친다. 도샤의 균형이 건강한 삶에 중요한데, 특정 도샤가 지나치게 과하거나 부족한 경우 신체적·심리적 징후가 나타난다.’ 아유르베다는 식이요법, 정화요법, 마사지요법, 허브요법 등과 같은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도샤의 균형을 맞춰줌으로서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윤천성, 2018).

#### 2) 한국형아유르베다

한국형 아유르베다 심리유형은 윤천성(2017)에 의해 기본이론이 체계화 되었다. 한국형 아유르베다 심리유형은 아유르베다를 기초로 구조화된 훈련체계로 아유르베다의 에너지를 토대로 개인의 타고난 기질을 이해하고, 기질에 따른 심리유형을 인식하여 수용함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된다. 바타형, 피타형, 카파형을 기본 심리유형으로 명명하고 있으며, 기본심리유형의 의미는 스트레스가 없고 안정적인 때 가장 큰 에너지 유형으로 표현되어 개인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고 행동으로 드러난다(윤천성, 2017). 한국형 아유르베다 관련 연구는 ‘한국형아유르베다 심리유형척도(KAPTI) 타당성 연구(2017)’를 시작으로 다양한 분야에 활용하여 심신의 건강과 균형된 삶을 영위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윤천성, 2017).

### 3) 한국형아유르베다 기본심리유형

아유르베다는 인간을 하나의 작은 우주로 인식해 자연을 구성하는 다섯 가지 원소인 공간(空, Akasha), 바람(風, Vayu), 불(火, Agni), 물(水, Jala), 땅(地, Prthivi)을 인간의 신체에 그대로 적용하였다. 각각 원소의 속성은 첫째, 공간은 자연에 무수히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공간은 나머지 원소인 바람, 불, 물, 땅의 원소가 담길 수 있는 기본이 된다. 둘째, 바람(또는 공기)은 다른 원소들과 달리 실체가 모호하다. 공간에 가득 흐르고 있는 바람은 형체가 없지만 분명히 존재하며 흐르고 있다. 공기의 흐름을 만드는 바람은 모든 생명체의 생존에 반드시 필요한 존재이다. 이러한 바람은 마음, 인지, 표현, 상호의사소통과 같은 추상적인 아이디어와 기하학적인 사고 형태와 관련성을 지닌다. 셋째, 불은 창조적이기도 하며 파괴적이다. 따뜻함을 주기도 하지만 모든 것을 집어 삼키기도 한다. 이러한 불은 따뜻한 기운을 발산하고 삶에 활력을 불어 넣는 열정, 믿음, 격려, 자기 표현과 추진력 등과 관련성이 있다. 넷째, 물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고 그 자체로서 생명력을 지닌다. 이러한 물은 사랑, 욕망, 정서, 기능과 관련성이 있으며 사람이 느끼는 감정과 감동, 애정, 대인관계와 같은 면을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땅(또는 흙)은 다른 어떠한 원소보다 단단하고 강하다. 무겁고 가라앉으며 모든 생명체의 삶을 지탱하고 있는 안정적인 대지가 된다. 이러한 대지가 견고할수록 그 위에 있는 생명체는 안정적으로 정착 할 수 있다. 이러한 땅은 감각과 현실성에 의지하는 경향성이 강하며 물질세계가 돌아가는 원칙을 본능적으로 잘 이해하고 있다. 아유르베다는 이러한 5원소의 속성을 인간에게 그대로 적용하여 인간을 설명한다.

한국형아유르베다 5원소를 인간의 신체에 적용하면, 먼저 인간의 몸에는 다양한 공간이 존재한다. 입, 코, 소화기관, 배, 가슴, 모세관, 임파관, 조직, 세포등의 모든 공간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러한 공간은 시작과 가능성이라는 개념을 내포하고 있다.

한국형아유르베다의 5원소인, 공간, 바람, 불, 물, 땅의 원소의 조합에 따라 공간과 바람의 원소인 바타형(관계형), 불의 원소인 피타형(성장형), 물과 땅의 원소인 카파형(안정형)을 기본심리유형으로 명명하고 있으며 이러한 세 가지 기본심리유형은 인간의 내면에 내재하고 있다. 기본심리유형의 의미는 스트레스가 없고 안정적일 때 가장 큰 에너지 유형으로 표현되는 개인의 심리적 특성으로 개인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고 행동으로 나타난다.(윤천성, 2018).

이들 5대 요소를 인간의 신체 특이성에 적용하여 바타(vata), 피타(pitta), 카파(kapha)인 세 가지 속성을 트리도샤(Tridosha)라 하였으며, 이 특이성을 바탕으로 체질과 심리를 이해할 수 있게 하였다(이홍숙, 2017).

이러한 기본심리유형은 개인 행동의 동기가 되며 기본심리유형의 균형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근원이 된다. 이러한 심리유형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 가. 바타형(V, 관계형)

바타형(V, 관계형)은 공간과 바람의 원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바타(vata)는 산스크리트어로 ‘움직인다’, ‘냄새 맡다’는 어원이 있다. 공간 안에서 순환하는 바람의 움직임은 이들의 심리적 특성을 잘 표현하고 있다. 이들은 타인 또는 대상과 연결되려는 근원을 지니고 있으며, 정서적 에너지로 표출된다.

바타형이 지닌 심리적 특성은 공간과 바람의 성질에 기인한다. 한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동하는 바람처럼 지속적으로 이동하려는 경향을 지닌다. 이들은 현실에 안주하거나 한 가지에 몰입하기보다 한 걸음 떨어져 현실을 관찰 하고자 하는 욕구를 지닌다. 바타형은 호기심이 강하고, 주변 상황에 대한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활발하다. 연결하고자 하는 근원을 지닌 이들은 활력이 넘치고 폭 넓은 인간관계를 형성하며 높은 적응력을 지닌다. 이들은 빠르게 이해하고 상황판단을 잘 하지만 기억력이 불규칙하고 인내심이 부족하며, 변덕스럽고 산만한 경향을 지닌다.

이들의 특성은 밤하늘에 떠있는 달(Moon)에 비유 할 수 있는데, 달이 지닌 정서적 느낌과 무의식적인 반응을 통한 교감, 어머니와 같은 친밀감은 바타형을 상징한다. 이러한 정서적 반응은 대개 과거의 경험에서 비롯되어 현재에 반영되는 경우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에너지가 긍정적으로 표현 될 때는 내적 만족, 유연성, 포용력, 타인의 정서에 대해 절적하게 반응하지만, 부정적으로 표현 될 때는 지나치게 민감하거나, 불안, 초조, 억제된 느낌, 심리적인 동요를 느끼게 된다(윤천성, 2018).

### 나. 피타형(P, 성장형)

피타형(P, 성장형)은 불의 원소로 구성되어 있다. 피타(pita)는 산스크리트어로 ‘집중’과 ‘열’을 뜻하는 타프(Tap)에서 파생되었다. 불의 열정과 뜨거움, 강력한 확장성이 이들의 심리적 특성을 잘 표현하고 있다. 이들은 자기와 대상을 확장하려는 근원을 지니고 있으며, 역동적 에너지로 표출 된다. 피타형의 심리적 특성은 불의 성질과 관련성을 지닌다. 불은 역동적이며 화력이 있고 강한 확장성을 지닌다. 이러한 특성은 흥분과 열정이 가미되어 생동감 넘치는 활력을 통해 분위기를 밝고 화사하게 만든다. 이들은 자신이 믿는 것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지니고 있으며 주도적이다. 확장하려는 근원을 지닌 이들은 자신이 추구하는 것을 달성하기 위해 열정적으로 행동하며, 언행을 분명히 하고 상황이나 환경의 압력에 굴하지 않는다. 논쟁하는 것을 좋아하는 이들은 지적이며 명민하고 논리적이며 날카로운 기억력을 지녔지만, 지나치게 비판적이며, 직선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한편, 독선적이고 화를 잘 내는 경향을 지닌다. 이들의 특성은 스스로 에너지를 발산하고 멀리까지 확장해 만물에 생명에너지를 발산하는 해(Sun)에 비유할 수 있다. 해의 생명에너지, 활기, 의지력, 자아인식, 아버지, 권위자 등의 표상은 피타형의 상징이다. 이러한 에너지가 긍정적으로 표현될 때는 관대

함, 활기반사, 자신감, 창조적인 자기표현을 하지만, 부정적으로 표현될 때는 교만, 오만함, 자기과시, 특별한 존재가 되려는 갈망을 갖게 되기도 한다(윤천성, 2018)..

#### 다. 카파형(K, 안정형)

카파형(K, 안정형)은 물과 땅 원소의 조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카파(kapha)는‘포용’을 뜻한다. 느긋하게 흘러가는 물의 여유와 땅의 견고함은 이들의 심리적 특성을 잘 표현하고 있다. 이들은 대상에서 자기의 영역에 정착하려는 근원을 지니고 있으며, 사색적 에너지로 표출됩니다. 카파형의 심리적 특성은 물과 땅의 성질과 관련성을 지닌다. 물의 점착성과 고요함은 사람들이 알아차리지 못하는 미세한 느낌을 이해하고 깊은 정서 차원의 반응 영역에 담당한다. 충동적인 정열, 알 수 없이 엄습하는 두려움, 느낌에 따라 무차별적인 수용 등이 물의 속성에 해당한다. 물의 속성은 사람들로 하여금 내면의 갈망을 실현하고자 하는 본능적 욕구를 갖게 하며, 땅의 속성은 감각과 현실성에 의지하도록 한다. 정착하려는 근원을 지닌 이들은 느긋하고 높은 자제력을 지녀, 조심스럽고 사려 깊으며 잘 변하지 않으려는 성향을 지닌다. 이들은 사람에 대해 높은 신뢰감을 갖고, 사랑과 헌신을 다하며 잘 변하지 않지만 대상에 대해 지나치게 집착하거나 욕심이 많은 경향을 지닌다. 이들은 무기력해 질 수 있으며, 상황을 판단하거나 명확히 이해하는데 시간이 필요하지만 한번 기억한 것은 잘 잊어버리지 않는다. 이들의 특성은 늘 같은 자리에서 안정적이며 고요히 빛을 밝혀 여행객에게 지침이 되는 별(Star)에 비유할 수 있다. 오랜 시절부터 인간은 밤하늘에 떠있는 별을 통해 길흉을 점치기도 하고, 늘 한결같은 모습으로 밤하늘에 나타나 계절의 순환을 알게 해주는 등 동요하지 않고 자신의 자리에서 중심을 잡고 있는 카파형의 모습을 표현한다. 카파형이 긍정적으로 표현될 때는 정이 많고 인내심이 강하며, 안정감이 있지만, 부정적으로 표현될 때는 드러내려 하지 않고, 무기력감을 표현 할 수 있다(윤천성, 2018). 한국형아유르베다 기본심리유형에 대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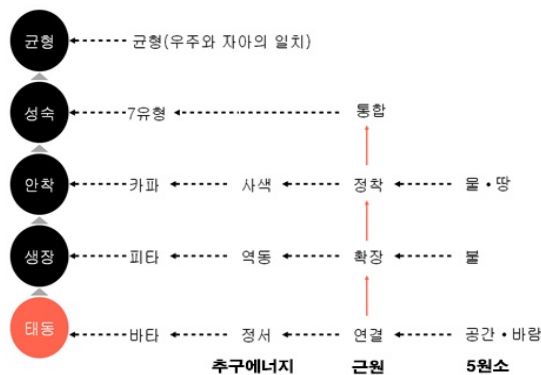
<표 1> 한국형아유르베다 기본심리유형(윤천성, 2017b)

유형	바타형(V, 관계형)		피타형(P, 성장형)		카파형(K, 안정형)	
근원	연결		확장		정착	
에너지	정서		역동		사색	
5원소	바람·공간		불		땅·물	
상징	달		태양		별	
인체기능	이화작용(이동)		변화작용(변형)		동화작용(포용)	
성질	시원함, 불규칙, 건조함, 맑음, 가벼움, 미세함		액성, 예리함, 더움, 뜨거움, 기름진, 가동성		무거움, 안정성, 점성, 견고함, 고요함, 느림	
언어	말이 많고, 말투 빠름		따지기 좋아하고, 논쟁적		조화, 말이 느림	
특징	호기심이 강하고, 움직임이 분주함		자기주장이 강하고, 논리적		잘 동요되지 않고, 보수적	
강점	공감력, 적응력		열정적이고 주도적		신뢰감, 인내심	
약점	미결단, 산만		공격적, 독선적임		의존성, 집착	
7유형	바타피타 (관리형) VP	바타카파 (친교형) VK	피타바타 (통솔형) PV	피타카파 (탐구형) PK	카파바파 (화합형) KV	카파피타 (성취형) KP
균형유형	카파피타 (성취형) KP	피타카파 (탐구형) PK	카파바타 (화합형) KV	바타카파 (친교형) VK	피타바타 (통솔형) PV	바타피타 (관리형) VP

#### 4) 한국형아유르베다 교육훈련체계

한국형아유르베다 교육훈련체계는 윤천성(2016)에 의해 창시되었고, 한국형아유르베다 형성체계와 인간의 성장체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태동을 시작으로 성장, 안착, 성숙을 통해 최종 우주와자아의 일치를 이루는 균형의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인 교육훈련체계와 교육과정 단계별 내용은 다음 <그림 1>과 같다.

한국형아유르베다 교육훈련 체계



<그림 1> 한국형아유르베다 심리유형 교육훈련체계(윤천성, 2018a)

## 5) 한국형아유르베다 심리유형검사(KAPTI)

한국형아유르베다 심리유형검사(KAPTI)는 윤천성(2017)에 의해 제작된 한국형 표준화 검사로 총 4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검사는 자신의 타고난 기질에 의한 심리적 유형을 이해함으로써 건강한 성장을 통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개발되었다. 본 검사는 자기탐색, 자기치유, 자기행복을 위한 것이며 심리, 교육, 경영, 복지, 뷰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행복 성장의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 2. 혈액형

### 1) 혈액형의 정의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혈액형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전 세계적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코로나에 강한 혈액형과 잘 걸리는 혈액형은 어떤 혈액형인가? 에 대해 미국, 중국, 독일, 덴마크, 캐나다 에서 연구한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세계의 관심을 받고 있다.

혈액형이란 혈구가 가지고 있는 항원의 유무 또는 조합으로 혈액을 분류하는 방식을 말하며, 영어로는 ‘Blood group’ 또는 ‘Blood type’ 이라고 하고 독일어로는 ‘Blut gruppen’ 이라고 칭하고 있다. 혈액형에는 ABO 식 혈액형, Rh 혈액형뿐 아니라 P, Li, Lewis, Duffy Kidd, Kell 등 수백 가지가 존재한다. 이렇게 많은 혈액형 중에서 ABO식과 RH식 혈액형이 잘 알려진 이유는 수혈할 때 반드시 맞추어 주어야 하기 때문인 것이다.

김형석(2006) 연구에 의하면 ABO식 혈액형은 1900년 미국의 면역학자, 병리학자인 란트슈타이너(K. Landsteiner)가 ABO식 혈액형이라는 체계를 발견하였다. ABO식 혈액형에는 A형, B형, AB형, O형이 있으며 일생동안 변화가 없는 유전적인 것이다. 그리고 Rh 혈액형은 1940년 란트슈타이너(K. Landsteiner)의 제자인 위너(Winer)는 사람의 적혈구에 인도산 붉은털원숭이(Rhesus)와 같은 혈액형 인자가 있음을 발견하고 붉은털원숭이의 이름을 따서 Rh 혈액형 체계를 발표하였다. Rh 혈액형에도 여러 종류의 혈액형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양성과 음성으로 구분한다. Rh 양성 분포도는 미국인은 대략 20% 정도이고 동양인의 경우 대략 1% 미만이고 한국인은 약 0.1% 정도가 된다.

19세기까지는 사람의 혈액형은 누구나가 동일한 것으로 생각하였던 것인데 1901년 란트슈타이너(K. Landsteiner)에 의하여 개인적인 특성이 있음이 발견되었고 혈액형은 유전되는 까닭에 그 형태에 있어 각 민족간에는 대단한 차이가 있다. <표 2>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혈액형 빈도는 A형, O형, B형, AB 형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2〉 국가별 혈액형 분포

국명(國名)	A형(%)	B형(%)	AB형(%)	O형(%)
한국	34	27	11	28
일본	40	22	9	29
중국	28	19	5	4
영국	42	8	3	47
프랑스	47	7	3	43
이탈리아	42	9	3	46
러시아	36	23	8	33
미국(백인)	42	10	3	45
미국(흑인)	29	18	4	49
알래스카(에스키모)	44	13	5	38
나바호 인디언	27	0	0	73
페루 인디언	0	0	0	100
독일	41	12	5	42
폴란드	41	18	8	33

출처: 대한적십자사(2021)

## 2) 혈액형과 성격의 관계

1927년 도쿄 여대 교수 후루카와 다케지가 「혈액형에 따른 인성」이란 책을 출간한 이후 일본에선 혈액형 열풍이 불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혈액형에 대한 열풍이 사라졌으나, 1971년 노미 마사히코의 「혈액형으로 알 수 있는 궁합」이란 책이 120만 권 이상 판매되는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다시 혈액형에 대한 열풍이 불었다. 한국에서는 2004년 혈액형을 활용한 인재 활용법 안내서인 「혈액형 비즈니스 파워」라는 책이 출간되고, 역대 대통령과 CEO의 혈액형 분석 등 혈액형과 성격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인간은 외부 환경으로부터 주어지는 여러가지 자극에 대하여 반응하고 행동하며 의식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무의식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 그 반응이나 행동은 개인에 따라 각기 다르지만 혈액형에 다른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혈액형이란 우리 인간의 체질을 나누는 지표, 또는 분류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20세기 초 오스트리아의 의학자 카를 란트슈타이너가 혈액에서 발견하였다고 하여 혈액형이라 이름 붙여졌으나, 혈액형은 사실 혈액형만의 분류가 아니라 근육과 내장 조직은 물론 손톱, 발톱, 땀, 머리카락 한올 한올의 전신에서 검출된다. 우리의 성격을 유지해 주는 주역인 뇌수와 신경조직에도 혈액은 존재한다.

일본 법 의학계에서는 특히 혈액형 감정 기술이 발달해서 머리카락 4센티미터 정도만 있으면 혈액형을 알아낸다. 법의학의 일인자인 후루하타 다네모토 박사도 혈액형이라 부르

는 것보다는 체질형이라고 부르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한다(박희연, 2006). 그러면 혈액형과 성격의 관련성은 얼마만큼 있는 것인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혈액형과 성격과의 상관관계는 약 80년 전에 처음 알려져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혈액형과 기질이나 체질이 관계가 있다는 사실은 지금까지 이루어진 수많은 조사를 통해 얻는 자료로 현상적으로는 확인 되었다(박희연, 2006).

각 혈액형(A·B·AB·O형)별 기본성격의 장·단점과 기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가. A형 기본 성격

A형의 성격을 핵심 요약해 보면 신중하고 겸손하며 책임감이 강하며 논리적이고 직감적이다. 그러나 이성적인 일관성과 의지, 결단력이 부족하고 내성적이고 소심한 성격이다.

A형은 환경에 순종함으로써 어른스러워 보이며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극히 신중하여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만, 일의 결과나 상대의 평가에 대해서는 겸손하고 반성적이다. 책임감도 강하고 사색파이며 완전주의 성격 때문에 하나를 끝낸 후 다음 일을 하는 한가지 사업에 집중하는 형이다. 따라서 여러 가지 일을 한꺼번에 처리하는 것에는 능숙하지 못하다.

A형은 새로운 것에 도전을 잘하고 자기 스스로 극한적 고통 상황에 뛰어들다. 따라서 극기 탐험가나 히말라야를 등반한 등반가들 중에는 A형이 많다. 또한 한번 결정한 일에는 좀처럼 바꾸지 않으며 외관과는 상관없이 마음속에 자리잡은 완고한 성격 소유자이고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다. 그러나 이러한 완고한 성격 때문에 항상 현실에 불만을 표현하는 것이 A형의 단점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상식적이고 이해 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으며, 이것은 사회의식 속에서 비롯되는 이중성의 성격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A형의 장점은 세심하고 이해심이 많고 매사에 진지하다. 그리고 말에 논리가 있으며 분명하게 자신의 뜻을 밝힌다. 반면 단점은 남을 잘 믿지 않는 것과 의심이 많고 사람을 차별하며 형식적 이라는데 있다.

한국인들은 바로 불붙기 쉽고 바로 식는 성격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으며, 마치 냄비와 같은 성향이라고 할 수 있다. A형 감정의 배후에는 이성적인 일관성과 의지가 없는 것이다. 걱정이 앞서고 감정이 치우치기 쉽고 결단력이 부족하고 내성적이며 부정적이므로 자신을 굽히기 쉽고 부끄럼을 타는 성격이다. 그 때문에 비사교적인 고독한 존재형이 되어 버린다.(김평옥, 2000).

또한 A형은 직감적이고 논리적이며 추리력이 뛰어나 여러 작업을 거치지 않고 바로 일순간에 어떤 관념이나 상황을 파악하고 이해함으로써 그 본질에 접근할 수 있다. 직감적이고 순응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대체로 보수적이다.

## 나. B형 기본 성격

B형의 성격을 핵심 요약해 보면 행동파이고 주위 변화에 민감하다. 또한 활동적이고 쾌활하며 결단력이 있고 사교적이며 타인에 대해 친절하다. 그러나 신중함이 부족하고 자기 긍정이 강하며 방관자로 교제는 폐쇄적이다. 또한 언동이 낙천적, 충동적, 돌발적, 무반응적이다.

B형은 자기중심적이며 철저한 개인주의적인 성격이 강하여 유럽과 미국 등 방랑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50% 이상이 B형 혈액형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한다. 또한 자신이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임기응변의 상황조치를 매우 잘 취하는 것이 B형의 특징이다. 또한 자신의 물건을 잘 잃어버리는 경향을 지닌다. 장점으로는 상냥하며 창조적이며 감수성이 있고 정직하다. 객관성이 풍부하고 공평하며 신중하다.

또한 B형은 자기 주위의 변화에 대해서도 아주 민감하고 환경으로부터 받는 자극에 대한 응대가 재빠르고 활동적이며 쾌활하다. 무슨 일이든지 결단력이 있고 탐색하며 낙천적이고 사교적이며 타인에 대해 친절하고 왈자지껄한 것을 매우 좋아한다.

반면 무엇이나 금방 싫증을 내며 집착심이 적고 아주 대담하기는 하지만 신중함이 부족하다는 흠결이 있다. 제멋대로 행동하고 사실을 지나치게 과장하는 면이 있다. 일이 잘 될 때는 좋지만 조금만 곤란한 상황에 처해도 동요되기 쉽다. 의지가 강하지 못하고 말이 매우 많은 편이며 설치는 단점이 있다.

B형은 행동파로 분류할 수 있으며 활달함, 적극성, 환경의 빠른 적응 등 행동과 그 자체가 다. 한 가지 사실에 대해서도 사람에 따라 각기 달리 말하는 경우가 많으며, 감각이 지시하는 대로 행동 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무시되는 것을 매우 싫어하며 상대방이 자기를 모른 채하거나 이야기를 가로채면 바로 화를 낸다. 분노는 그야말로 불덩이 처럼 달아 올라서 폭발하는 식이다.(신정식, 1997).

## 다. AB형 기본 성격

AB형의 성격을 핵심 요약해 보면 냉철한 성격과 결단력이 있고 활동적이다. 또한 신중하고 세심하며 객관적인 판단력이 있다. 감정이 풍부하고 센스가 있고 감각적이며 세련미가 있으며, 예의가 바르며 겸손한 반면, 성질이 급하고 화를 잘내는 성격이다.

AB형은 감정이 A형의 기질과 B형의 기질이 공존하고 있는 성격으로 결단력이 있고 기민하며 활동적인 것은 B형보다 더 월등하다. 활동적인 것은 B형 그대로이지만 사고의 형태는 A형 그대로임을 알 수 있다.

AB형은 B형보다도 더 소수파이다. 그런데도 기질의 강약 관계로 볼 때 압도적으로 수가 많은 A형에 대하여 약자의 입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O형과 같은 열등의식도 없고 B형과 같은 소외감이 있는 것도 아니다. 강력한 우월감의 소유자이다. 하지만, 일대일 개인적으로

는 부드럽고 사교적이다.

장점은 성실하며 사회적 의무감이 있고 봉사정신이 많은 편이며 담백하고 자제심이 있으며 자기상실이 없고 취미가 광범위하다.

단점은 자주성이 부족하며 겸손하지 못 하고 끈기가 부족하고 변명을 잘 둘러대는 성격의 혈액형이다.

빨리 불붙고 빨리 식어버리는 냄비 같은 경향은 거의 없다. 감정의 배후에서 객관적인 안목과 합리적인 정신이 강렬하게 작용하고, 냉정하게 사리를 분별하는 감각이 예리하기 때문이다.

AB형 혈액형을 가진 사람은 인간관계에서 신경질적인 사람이 많다. 일부 대인 공포증이 있는 사람도 있으며 자신의 사회적 위치와 업무적인 면의 세력권을 지키는데 신경 과민적인 경향이 있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박희연, 2006).

#### 라. O형 기본 성격

O형의 성격을 핵심 요약해 보면 자기주장이 강하고 일 능력에 있어서 추진력과 힘이 있다. 또한 자신감과 의지가 강하고 고집스러운 면이 있으며 객관적이고 논리적이다. 타인의 개성을 존중해 주며 매사에 목적 지향적이다. 그러나 냉정, 냉담해지기 쉽고 개인주의 경향이 강하고 지배욕이 강하다.

O형은 자신감이 강하고 자신의 성격이 문제가 되거나 화제가 되는 것을 아주 싫어하는 경향이 있다. 의지가 강해 좀처럼 흔들림이 없고 이지적이어서 감정을 억누를 수가 있으므로 일단 무엇인가를 결심하고 나서 헤메는 법이 없다.

밀어붙이는 힘이 강하고 정력이 왕성하여 일을 척척 해내는 성격이다.(김평옥, 2000). 그 반면 자기가 판단한 것은 결코 굽히려 하지 않는 데다 남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고집이 있어 완고해지기 쉽다. 주위와의 융화성이 부족하고, 지나친 자신감으로 인해 겸양의 마음을 잃기 쉽다. 혈연 중심의 집단성을 유지하려는 성격이 강하며 어떤 일이든지 전문화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아무도 흉내 낼 수 없는 이것은 자기만이 할 수 있다는 외곶의 길을 깊이 파고드는 것이며 그러한 개성적으로 투철한 모습이 사람들의 감동과 공감을 불러일으킨다. 목적을 향해 돌진하고 성취력이 뛰어난 데 비하여 이러한 것이 지나쳐 강제적이고 타산적인 면만이 강조되어져 남한테 기피되는 성격이기도 하다.(신정식, 1995). 혈액형에 따른 기본 성격을 분류하여 보면 <표 3>과 같다.

<표 3> 혈액형에 따른 기본성격

구 분	A형	B형	AB형	O형
생활면	항상을 원하는 현상 탈피의 원망과 안정을 원하는 마음이 모두 강하다. 삶의 보람을 찾으려 한다.	사회적 야심이나 이해에 관한 것으로 약간 뒷전으로 한다.	자신이 할 역할을 찾아서 사회에 참가하는 것을 강력히 원하며 봉사적 정신이 있다.	생명의 자연적 방향에 매우 강하고 생활의 열의도 대단하며 욕망이나 성장욕이 직선적이어서 한계가 없다.
생활면 경향	공과 사의 생활을 분명히 하고 건실한 생활을 원한다. 일상 행동이나 사건 예방에 매우 부지런하다.	형식이나 관습에 구애를 받지 않고 자유로운 생활을 희망한다. 자기중심적이다. 규제나 구속됨을 싫어한다.	합리적, 기능적인 생활을 원한다. 사생활에서 취미성의 추구가 눈에 뜨인다. 반사 신경이 빠르며 비즈니스적으로 요령이 좋다.	생활력이 왕성하고 적극적이며 현실성이나 이해관념이 분명하다. 목적에 대한 성취력이 높아서 목표 달성력이 크다.
행동성	새로운 행동에 신중하고 끝까지 참다가 폭발하는 성질이다.	주위에는 신경을 쓰지 않으며 새로운 행동에 주저하지 않는다.	매사에 시작에는 열정이지만 뒤처리를 못한다.	성력이 크다. 행동은 직선적이고 좀 대법하다.
학습성	단계별로 이해하고 전진한다.	폭넓은 호기심 보다는 사실에 대해서 주목한다.	요령이 좋으며 이해가 빠르다.	호기심도 전문화한다. 기억은 깊이 몸에 배인다.
감정성	내면적으로는 격렬하고 성급하지만 표면적으로는 억제형이 많다.	기본적 변동이 크며 변동이 많은 경향이다. 감정의 표현을 억제하지 않는다.	냉정한 안정면과 기본적 동요면의 양면성이 있다.	일상적으로 안정형. 감정이 풍부하고 막다른 길에서는 크게 혼란스러워 진다.
내구력	계속적 노력이나 고통을 잘 참는다. 변화에 약하고 흥미의 지속에는 권태가 빠르다.	흥미의 지속성이 가장 크며 집착성이 있다. 행동하는 면에서 조급한 면이 많다.	노력의 가치를 인정하고 노력하는 성품이지만 본질적으로 끈기가 좀 부족하다.	목적이 있을 경우 버티고 기다리는 힘이 가장 많다. 불가능 판단시 빨리 단념한다.
대인관계	항상 안정되고 평화로운 상황을 원하며 세심하게 신경을 쓰고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은 좀 늦는다.	형식적인 인사말 등을 싫어하며 마음의 문을 빨리 개방하고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	미소를 잃지 않고 온화하고 실수가 없다. 공평하고 지나치게 가까운것을 싫어하고 무척 냉정한 편이다.	화끈한 인간성, 동료, 친지사이에는 스킨십이 많고 신뢰를 중요시 한다. 미지의 상대에게 경계심이 크다.
사회성	협조의 팀워크를 중시하고 질서나 규범을 존중한다.	자주적 행동을 원하며 원칙은 없어도 변화에 즉시 대응한다. 따돌림에 민감하다.	당사자일때 보다 제삼자일 때에 더강하고 조화역이나 중간역할을 잘한다.	힘 관계에 과민하고 라이벌 의식이 있으며 자기 주장형이다.
취 미	무드파이며 일에서 떠난 취미를 좋아한다.	취미와 일을 잘 구별하지 않는다.	취미가 많고 다채롭다. 공상적, 동화적 취미가 있다.	낭만적 표현을 좋아한다. 개성파이고 회고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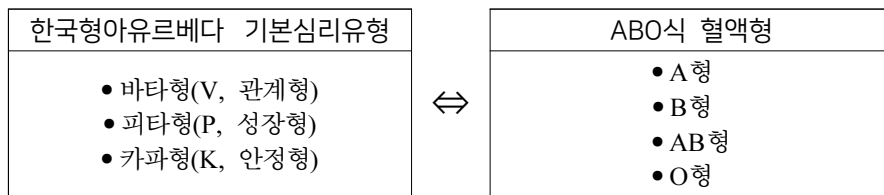
출처: 신정식, 1995

### Ⅲ. 연구방법

#### 1. 연구모형

본 연구는 한국형한국형아유르베다 심리유형과 혈액형과의 관계 분석자료를 리더자에게 제공하여 구성원들의 감성관리를 통한 업무성과를 향상시키고, 개인에게도 알려줌으로서 자신의 한국형아유르베다 심리유형과 혈액형을 알고 균형있는 삶과 근무 중 사고예방 및 조직의 성과 제고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한국형아유르베다 심리유형과 혈액형의 상관관계를 <그림 2> 연구모형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그림 2> 연구모형

#### 2. 측정도구

한국형아유르베다 심리유형검사(KAPTI)는 윤천성(2017)에 의해 제작된 한국형 표준화 검사로 총 45개 문항으로 Likert 5점 척도로 하였다.

혈액형은 개인별 대한적십자사에서 발행한 헌혈증서를 활용하였고, 혈액형 유형은 A형, B형, AB형, O형 등 4개 혈액형 유형만 사용하였다.

#### 3. 연구대상 및 절차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리더 및 구성원, 교육기관의 석·박사, 군 장병을 대상으로 한국형아유르베다 심리유형검사(KAPTI)지를 활용하고, 대한적십자사에서 발행한 헌혈증서의 결과를 혈액형 4개 유형중 하나를 작성토록 하였으며 직접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설문은 2021. 11. 1일 부터 12. 30일 까지 3차에 걸쳐 직접 설문조사를 시행하였으며, 99부 모두 성실하게 설문에 응하여 전부 분석에 이용하였다.

## 4.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의 통계처리는 SPSS WIN 21.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표본의 성별분포를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한국형아유르베다 심리유형에 대해 알아보고, 일반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한국형아유르베다 심리유형에 따라 혈액형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 IV. 연구결과

### 1. 표본의 성별분포

표본의 성별분포에 대해 분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분석결과 총 99명 중 성별은 남성 19명(19.2%), 여성 80명(80.8%)으로 나타났다.

<표 4> 표본의 성별분포

구분		빈도(N)	퍼센트(%)
성 별	남 성	19	19.2
	여 성	80	80.8
전 체		99	100.0

### 2. 한국형아유르베다 심리유형

한국형아유르베다 심리유형에 대해 분석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분석결과 전체적으로 볼 때, 한국형아유르베다 기본심리유형은 ‘피타형(P)’ 63명(63.6%), ‘카파형(K)’ 29명(29.3%), ‘바타형(V)’ 7명(7.1%) 순으로 나타났고, 한국형아유르베다 7유형은 ‘피타카파형(PK)’ 46명(46.5%), ‘피타바타형(PV)’과 ‘카파피타형(KP)’이 각 17명(17.2%), ‘카파바타형(KV)’ 12명(12.1%), ‘바타피타형(VP)’ 4명(4.0%), ‘바타카파형(VK)’ 3명(3.0%) 순으로 나타났다.

표본의 성별분포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기본심리유형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p < .05$ ), 남성의 경우 89.5%가 피타형(P)으로 나타났으나 여성의 경우 57.5%가 피타형(P), 33.8%가 카파형(K)으로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표 5> 한국형아유르베다 심리유형

구분		성별		전체	$\chi^2$ (p)
		남성	여성		
기본심리 유형	바타형(V, 관계형)	0(.0)	7(8.8)	7(7.1)	6.956* (.031)
	피타형(P, 성장형)	17(89.5)	46(57.5)	63(63.6)	
	카파형(K, 안정형)	2(10.5)	27(33.8)	29(29.3)	
7유형	바타피타형(VP, 관리형)	0(.0)	4(5.0)	4(4.0)	11.061 (.051)
	바타카파형(VK, 친교형)	0(.0)	3(3.8)	3(3.0)	
	피타바타형(PV, 통솔형)	2(10.5)	15(18.8)	17(17.2)	
	피타카파형(PK, 탐구형)	15(78.9)	31(38.8)	46(46.5)	
	카파바타형(KV, 화합형)	0(.0)	12(15.0)	12(12.1)	
	카파피타형(KP, 성취형)	2(10.5)	15(18.8)	17(17.2)	
전체		19(100.0)	80(100.0)	99(100.0)	

\*p<.05

### 3. 한국형아유르베다 심리유형에 따른 혈액형 차이

한국형아유르베다 심리유형에 따라 혈액형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먼저 혈액형은 전체적으로 볼 때, ‘O형’이 36명(36.4%)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A형’ 33명(33.3%), ‘B형’ 21명(21.2%), ‘AB형’ 9명(9.1%)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형아유르베다 심리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7유형에 따라 통계적

<표 6> 한국형아유르베다 심리유형에 따른 혈액형 차이

구분		혈액형				$\chi^2$ (p)
		A형	B형	O형	AB형	
기본심리 유형	바타형(V, 관계형)	0(.0)	2(28.6)	5(71.4)	0(.0)	5.981 (.425)
	피타형(P, 성장형)	23(36.5)	13(20.6)	21(33.3)	6(9.5)	
	카파형(K, 안정형)	10(34.5)	6(20.7)	10(34.5)	3(10.3)	
7유형	바타피타형(VP, 관리형)	0(.0)	1(25.0)	3(75.0)	0(.0)	31.564** (.007)
	바타카파형(VK, 친교형)	0(.0)	1(33.3)	2(66.7)	0(.0)	
	피타바타형(PV, 통솔형)	1(5.9)	7(41.2)	7(41.2)	2(11.8)	
	피타카파형(PK, 탐구형)	22(47.8)	6(13.0)	14(30.4)	4(8.7)	
	카파바타형(KV, 화합형)	1(8.3)	5(41.7)	3(25.0)	3(25.0)	
	카파피타형(KP, 성취형)	9(52.9)	1(5.9)	7(41.2)	0(.0)	
전체		33(33.3)	21(21.2)	36(36.4)	9(9.1)	

\*\*p<.01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p < .01$ ), 바타피타형(VP)과 바타카파형(VK)의 경우 대체적으로 O형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피타바타형(PV)의 경우 B형이나 O형이 많은 것으로, 피타카파형(PK), 카파피타형(KP)의 경우 A형이 많은 것으로, 카파바타형(KV)의 경우 B형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이 외에 기본심리유형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p > .05$ ).

## V. 결론

### 1. 연구결과 요약 및 시사점

본 연구는 한국형아유르베다 심리유형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기업의 리더 및 구성원, 교육기관의 석·박사, 군 장병의 한국형아유르베다 심리유형을 탐색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형아유르베다 심리유형과 혈액형간에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한국형아유르베다 심리유형이 선천적으로 타고난 혈액형의 특성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탐색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조사대상자의 한국형아유르베다 심리유형에서 표본의 성별분포는 기본심리유형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혈액형 차이를 분석한 결과 기본심리유형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7유형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한국형아유르베다 심리유형과 혈액형간의 확연한 분포 경향이 뚜렷하였다.

다음으로 한국형아유르베다 심리유형 구분에 따라 혈액형에 대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교차분석을 이용 차이검정을 실시한 결과 유의미한 검증결과를 도출하였다.

한국형아유르베다 심리유형과 혈액형과의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본심리유형의 성별분포에 있어서 남성은 피타형(89.5%) 카파형(10.5%) 바타형(0%) 순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은 피타형(57.5%) 카파형(33.8%) 바타형(8.8%)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7유형의 성별분포에 있어서 남성은 피타카파형(78.9%) 피타바타형(10.5%) 카파피타형(10.5%) 순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은 피타카파형(38.8%) 피타바타형(18.8%) 카파피타형(18.8%) 카파바타형(15%) 바타피타형(5%) 바타카파형(3.8%) 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기본심리유형의 혈액형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바타형은 O형과 B형이, 피타형은 A형과 O형이, 카파형은 A형과 O형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7유형의 혈액형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바타피타형(VP)과 바타카파형(VK)은 O형, 피타바타형(PV)은 B형과 O형, 피타카파형(PK)과 카파피타형

(KP)은 A형, 카파바타형(KV형)은 B형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본 연구결과를 볼때 한국형아우르베다 심리유형(7유형)과 혈액형간의 유의수준  $**p<0.01$ 에서 유의미한 결과값이 도출되어 차이분석에서 이론적 배경 연구결과를 기초로 분석한 결과 한국형아우르베다 심리유형과 혈액형의 관계가 상당한 유사성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의해 기업 및 군 지휘관이 한국형아우르베다 심리유형과 혈액형의 관계분석을 통해 조직 구성원들의 감성관리를 통한 업무능률을 향상시키고, 특히 군 지휘관은 장병의 기본심리유형을 파악하여 이를 병영생활에 적용한다면 군의 인명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 활기찬 병영생활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하며 군 전투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

향후, 한국형아우르베다 심리유형과 혈액형과의 관계 분석시 조사대상자를 300~500명 이상으로 늘려 통계분석 처리하여 유의수준  $**p<0.01$ 에서도 유의미한 값 도출과 신뢰도 향상을 위해 추가분석이 필요하며, 유의미한 연구결과 값 도출시 기업의 이윤창출과 군의 비전투 손실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 적용하여 분석해 볼 가치가 있겠다.

## 2. 연구의 한계점 및 제언

본 연구는 다음 몇 가지의 한계점을 보이고 있다.

첫째, 연구 설문대상수가 99명으로 표집집단이 너무 적어 신뢰도가 낮을 것으로 생각되며, 상관관계 분석시 유의확률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다. 따라서 향후 연구시 다양한 표본 집단을 구성하고 집단수를 늘려서 신뢰도를 높여야 하겠다.

둘째, 한국형아우르베다 심리유형과 혈액형 연구를 기초로 사상체질과의 관계, 또는 리더십과의 상관분석을 연구하여 기업의 CEO와 군 지휘관에 제공하여 조직 구성원 신상관리에 활용 일정기간 적용하여 기업의 이윤창출과 신바람나는 근무환경 조성, 군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여 비전투 손실 방지에 도움이 되는지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겠다.

## 참고문헌

- 강화진·윤천성(2018a). 한국형아유르베다 기본심리유형에 따른 체질에 관한 연구. 인문사회21. 9(5). (사)아시아문화학술원. 11-26.
- 김병성(2010). 남자중학생의 혈액형별 운동능력과 생활환경 조건의 관련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성대학교 대학원.
- 김영규·윤천성(2016). 국내 아유르베다 연구에 대한 석·박사학위논문 동향 분석. 평생교육리더십연구. 3(2). 한국평생교육리더십학회. 5-24.
- 김지혜(2014). 혈액형별 사상체질에 따른 약용작물 발효에 분류 및 효능에 관한 문헌적 고찰, 석사학위논문,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평옥 편저(2000). 혈액형을 알아야 성공한다 - A형, B형, AB형, O형. 서울: 경영자료사.
- 김형석(2006). 혈액형별 색채 선호에 관한 감성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아트 퓨전 디자인 대학원.
- 김황식(1984). 혈액형과 체력장 특급자와의 상관 비교 연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 박기현(1995). 기본도형과 혈액형에 따른 청소년의 색채 표현 심리연구, 석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대학원.
- 박희연(2006). 혈액형 新 인간학. 서울: 동서고금.
- 백승철(2013). 자기 탐색과 상담 활용법. 서울: 도서출판 심상코.
- 서원득(2002). 중학생의 혈액형별 체격과 체력 상관관계 연구, 석사학위논문, 인제대학교 교육대학원.
- 신정식(1995). 혈액형과 인간관계. 서울: 보성출판사.
- 주창기(2005). 유쾌한 혈액형 성공학. 서울: 평단.
- 윤천성(2017a). 한국형아유르베다 심리유형검사(KAPTI) 타당성연구. 평생교육리더십연구. 4(1). 한국평생교육리더십학회. 5-23.
- 윤천성(2017b). 한국형아유르베다 심리유형검사(Korean Ayurveda Psychology Type Indicator). 휴마인연구원.
- 윤천성(2018). 한국형아유르베다 심리유형검사(KAPTI) 표준화 연구. 평생교육리더십연구. 5(1). 한국평생교육리더십학회. 5-29.
- 이홍숙(2017). 한국형아유르베다 심리유형검사를 통한 상담사례연구. 평생교육리더십연구. 4(2). 한국평생교육리더십학회. 27-54.
- 이홍숙(2019). 학교부적응 가족을 위한 한국형아유르베다 심리유형 검사를 활용한 상담사례연구. 평생교육리더십연구. 6(1). 한국평생교육리더십학회. 27-53.
- 팀 라헤이·황의정(1994). 기질의 장단점과 잠재력. 서울: 예찬사.

## ABSTRACT

# A Study on the Correlation Between Psychological Type and Blood Type of Ayurveda in Korea

Kwak, Yong Kee\*

\*Professor, College of General Education, Dong-a University  
(E-mail: major0427@hanmail.ne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psychological type of Korean Ayurveda through the Korean Ayurveda psychological type test, and to analyze the degree of correlation between the Korean Ayurveda psychological type and blood type.

With the development of modern society, interest in individual personality and blood type has recently increased in various fields such as companies, counties, government offices, and educational institutions, and organizations are using it a lot, and our people are also applying it separately by blood type.

In this study, Korean Ayurveda used the Korean Ayurveda Psychological Type Test (KAPTI) paper standardized and developed by the Humind Research Institute,

Blood types used blood donation certificates issued by the Korean Red Cross for each individual, and the correlation with Korean-style Ayurveda was studied using genetic ABO-type blood types (A, B, AB, O type) types that remained unchanged throughout life.

As a result of this study, a significant result value was derived from the significance level of Korean Ayurveda psychology type (7 types) and blood type  $**p<0.01$ , and the analysis showed that the Korean Ayurveda psychology type and blood type correlated with each other.

In the future, when analyzing the relationship between Korean-style Ayurveda psychological type and blood type, it is necessary to increase the number of subjects to 300 or more to analyze whether it is significant at  $**p<0.01$ , and it is worth analyzing how much a company can reduce profits and military non-fighting losses.

**Keywords :** Ayurveda, Korean Ayurveda Psychological Type, Blood Type, Personality, Correlation